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자 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5.4.18.(금) 조간	배포	2025.4.17.(목)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 국제협력팀	책임자	국 장	박성주 (02-3145-7890)
		담당자	팀 장	박은혜 (02-3145-7892)

금감원장, 홍콩·중국 금융감독당국 면담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자본시장 선진화 등 감독 현안 논의

◆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5.4.14(월)~15(화) 홍콩과 중국을 방문하여 금융감독당국* 수장과 ①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, ②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 안정성 관리 방안 등을 논의

* 홍콩 : 증권선물위원회(SFC)

중국 :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(NFRA, 감관총국), 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, 증감회)

①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

○ 먼저, 홍콩과 중국의 증권감독기구 수장과 각각 면담하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각국의 추진 현황 및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

- 4.14일 줄리아 룡(Julia Leung) SFC CEO와 양국의 자본시장 감독 현안*을 공유하는 한편, 홍콩 가상자산시장 현황과 당국의 규제 경험**을 청취하고 건전한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방향을 논의

* 한국의 공매도 규제 개선 및 재개 현황, 홍콩의 공매도 제도 및 운영 현황, 양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, 대외 요인에 따른 시장 변동성 모니터링 등

** 홍콩은 '24.4월 아시아 최초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, 가상자산 육성 로드맵 발표

- 4.15일 우 칭(Wu Qing) 증감회 주석을 만나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, 공시 확대, 모험자본 공급 강화 등 자본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한 양국 감독당국의 역할에 관하여 논의하고, 상호교류를 확대하기로 협의

②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 안정성 관리 방안

○ 이어서 샤오 유엔치(Xiao Yuanqi) 중국 감관총국 부국장을 면담하여 최근 양국 경제·금융 상황 및 금융부문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 감독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

1

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

◆ 홍콩 SFC 줄리아 룡(Julia Leung) CEO와 중국 증감회(CSRC) 우 칭(Wu Qing) 주석을 예방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논의

(1) 홍콩 증권선물위원회(SFC*) CEO 면담

*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

□ 줄리아 룡 SFC CEO는 美 상호관세 등 대외요인에 따른 변동성 증가에도 홍콩 주식시장은 일시적 충격* 이후 안정**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단

* 4.4(금) 휴장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(4.2일) 영향이 한번에 반영되어 4.7(월) Δ13.2% 급락

** 항셱지수도 빠르게 회복되는 중이고, 불안한 시장 상황 하에서 공매도 거래동향도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 특정 종목에 쏠림 없이 통상적인 수준(비중)을 유지하고 있음

○ 또한, 최근 한국의 자본시장 개선 노력을 잘 알고 있고 홍콩도 지난 수년간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서

-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학계·투자자·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
○ 한편, 한국의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홍콩 소재 금융회사가 한국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SFC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

□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고려하여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도 공매도를 재개하여 중단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, 그간 글로벌 IB 관련 SFC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에 감사를 표함

□ 한편, 양 수장은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수요와 투자자 보호, 전통적인 금융상품과의 규제차익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

○ 아시아 최초의 가상자산 현물 ETF 및 토큰형 머니마켓 ETF 승인, 가상자산 육성 로드맵 발표 등 최근 홍콩의 가상자산 거래·규제 동향을 공유하고, 가상자산 감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협의

(2)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(CSRC*) 주식 면담

*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

□ 우 칭 주석은 최근 중국 당국의 자본시장 감독정책과 관련하여

- '24.4월 발표한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시장 발전 방안에 따라 지난 1년간
①시장 진입·퇴출 요건 강화, ②거래 모니터링 강화, ③배당 확대 등을
적극 추진해 왔고, 상당한 성과*를 거두었다고 소개

* ① 베이징·상해·선전 등 중국 3대 거래소에서 55개 기업 상장폐지(총 상장기업의 1% 수준)
② '24년 분식회계 관련 제재를 강화하여 153억 위안(약 3조원)의 과태료 부과
③ '24년 배당금 2.4조 위안(약468조원)으로 역대 최대(시가총액 86조 위안 대비 배당률 3% 수준)

- 또한,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, 투명성
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시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,
-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장기 지분투자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
자본시장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힘

□ 이복현 원장은 밸류업,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등
투자자, 기업, 금융회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 및 효율적
자원 배분을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중점 추진과제*를 소개하고,

* ① 모험자본 확대를 통한 신성장 산업 지원, ②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밸류업 지원,
③ 대체거래소 도입 등 시장 인프라 확충 및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등

- 양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등에 유사점이 많아 상호
협력 여지가 큰 만큼 향후 활발히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

□ 우 칭 주석은, 한국 경제는 반도체 등 산업 기반이 탄탄한 가운데 한국
증시 또한 최근 변동성 확대에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으로 보이고
있다고 평가하면서,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

◆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(NFRA*) 샤오 유엔치(Xiao Yuanqi) 부국장과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 안정성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

* National Financial Regulatory Administration

□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등으로 환율 급등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 금융감독당국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논의

○ 샤오 유엔치 부국장은 글로벌 무역갈등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외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

- 중국 정부는 큰 내수시장 등 중국경제의 특성을 살려 내수 진작 및 AI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힘

□ 특히 양측은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부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관하여 논의하고, 이러한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공감

○ 이복현 원장은 한국 금융당국은 외부 충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고

○ 샤오 부국장은 중국 당국도 금융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, 현재 중국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*을 볼 때 건전성 우려는 낮다고 강조

* 부실자산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200% 이상

□ 한편, 양 기관은 한·중 양국이 인접 국가로서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이 크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기로 협의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